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사실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1막은 둘째 아들의 충격적인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유산 분배가 아버지 사후에만 이루어지는 당시 관례상, “아버지가 죽기를 바랍니다”라는 패륜적인 선언과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인격적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비유의 진정한 충격은 아버지의 반응에 있습니다. 당시 엄격한 가부장 사회에서 이러한 모욕을 당한 아버지는 아들을 징벌하고 내쫓아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분노 대신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줍니다. 여기서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비오스(Bios)’는 본래 ‘생명’을 뜻합니다. 즉, 아버지는 아들의 무모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갈기갈기 찢어 내어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절당하는 고통과 참참한 명예훼손의 수치를 묵묵히 견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팀 켈러가 강조한 ‘타산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대개 인간은 사랑을 거절당하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거두어들입니다. 그것이 상처를 최소화하려는 세상의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거부당하면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내던지고 생명을 찢으면서까지 집을 나가는 아들을 향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계산에서 벗어나, 생명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찢긴 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한 이 무모한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제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전부이자 목적이 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능동적인 성도가 됩시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정한 기준을 따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아버이 주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해 주신 아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신령한 원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 돌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버이의 사랑은 타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녀가 잘될 때나 넘어질 때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로 눈물 흘리는 부모님의 모습은, 집 나간 아들을 매일 문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대하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손과 백발은 우리를 향해 자신의 ‘비오스(Bios)’, 즉 생명을 찢어 내어주신 헌신의 흔적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성 어린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평안의 안식을 드리고, 이미 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지켜나갑시다.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때,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웁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이의 화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더해주시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5월 세 번째 주간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양육해 주신 스승과 리더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한 영혼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사역은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준 영적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스승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찢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셨듯, 우리 결의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낭비'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단순히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수고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심장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영적 리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영적 탈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권면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스승이 됩시다. 가르침에 순종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스승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수고하는 리더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기	찬송가 510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공동체의 하나 됨』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220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
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령강림주일을 시작으로 하는 한 주간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성령님의 역사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기 다른 지체로 부르셨으나,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사고 집단이 아니라, 성령의 띠로 묶인 거룩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짐을 나누어 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를 낮추고 지체를 높이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나를 찾는 수고가 있을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 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타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향해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정죄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며 서로를 용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림의 모든 권속이 성령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에 함께 울고 기쁨에 함께 웃어주는 진실한 교제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옆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때, 공동체는 비로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증인의 삶』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502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
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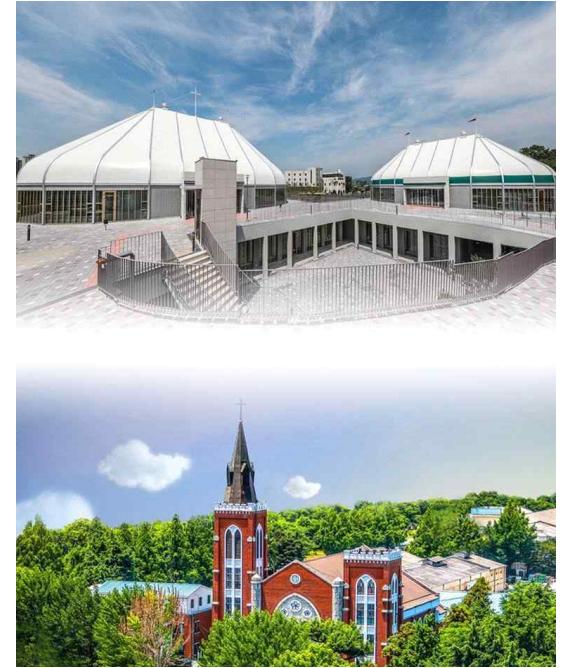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가는 5월의 끝자락, 우리는 이제 은혜의 동산을 넘어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한 달간 가정과 교회에서 공급받은 하늘의 위로와 사랑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고인 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의 삶이란 단순히 거창한 복음의 구조를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의 언어와 행동으로 번역해내는 거룩한 실천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쫓아 계산을 두드리며 움직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좁은 길을 걷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미움을 받을지언정 먼저 용서를 베푸는 삶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비오스(Bios)'의 사랑, 즉 자신의 생명을 찢어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화생을 이제는 소외된 이웃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진실한 나눔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소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굳게 닫혀있던 세상의 마음 문들이 열리고 그 틈으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5월 한 달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린 모든 영적인 유산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며 세상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날마다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확장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